SUSTINVEST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 10. 8. (목)**	**보도일시**	**배 포 즉 시**
담당부서	솔루션본부 투자자솔루션팀	**담당자**	김영일 선임연구원(02-6310-9329) 조은빈 연구원(02-6310-9314)
배포부서	ESG솔루션팀	**언론담당**	송채우 연구원(02-6310-9305)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 비ESG 대비 3년 수익률 68.1%p 웃돌아

- 서스틴베스트,「2026년 상반기 ESG 펀드시장 리뷰」발간 -

- 6개월·1년·3년 수익률 모두 비ESG 상회 -

- ESG 점수와 초과수익률·위험조정성과의 연관성, 단기보다 3년에서 뚜렷 –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2026년 상반기 국내 ESG 펀드시장의 동향과 펀드별 ESG 성과, 투자성과 및 포트폴리오 차별성을 분석한 **'2026H1 ESG 펀드시장 리뷰'**를 발간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ESG펀드는 총 185개, 순자산은 9조 1,2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형 ESG펀드 55개를 대상으로 ESG 성과를 분석한 결과, ESG Score와 투자성과 간 관계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ESG Score와 KOSPI 대비 초과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6개월 0.287, 1년 0.351, 3년 0.471**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의 관계가 강화됐다. ESG Score와 위험조정성과를 나타내는 샤프비율[1] 간 상관계수 역시 6개월 0.158에서 1년 0.385, 3년 0.539로 확대됐다. 이는 ESG 성과와 투자성과 간 관계가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배구조(G) 성과와 장기 위험관리 지표 간 관계**가 두드러졌다. G Score는 단기 초과수익률 및 샤프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3년 기준으로는

[1] 샤프비율(Sharpe Ratio)는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나눈 지표로, 해당 투자가 단위 위험 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냄

샤프비율과 **0.487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하방편차[2]와는 **-0.345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다. 지배구조 성과가 단기적인 수익률 제고보다는 장기 위험조정성과 및 하방위험 관리와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ESG펀드의 ESG Score가 시장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ESG Score 중앙값은 76.81점으로 KOSPI의 76.68점을 0.13점 상회하는 데 그쳤다. 직전 반기 0.30점이었던 격차가 추가로 축소된 것이다. 액티브 ESG펀드의 ESG Score는 76.81점, 패시브 ESG펀드는 76.94점으로 유형별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투자전략별[3]로도 ESG 성과의 평준화가 나타났다. Integration(ESG 통합) 전략의 ESG Score 중앙값은 76.81점, Screening은 76.81점, Thematic은 76.75점으로 대부분 76점대 후반에 집중됐다. 특히 액티브 ESG펀드는 72.99~77.93점에 분포해 패시브 펀드의 72.77~83.01점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ESG펀드의 차별성을 ESG Score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투자전략이 종목 선정과 비중 조절 등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ESG펀드와 일반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ESG펀드는 일반펀드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6.9%p, 4.7%p Underweight(과소편입)[4]**했으며, 두 종목의 비중 차이가 전체 포트폴리오 차이의 27.1%를 차지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2026년 상반기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Underweight는 ESG펀드의 상대성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2] 하방편차(Downside Deviation)는 목표수익률(예: 0% 또는 무위험수익률)을 밑도는 구간의 수익률 변동성만을 측정한 지표로, 투자 성과가 기대 이하로 떨어질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임

[3] **Integration(ESG 통합)**: 전통적인 재무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종목의 투자매력도와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 / **Screening(스크리닝)**: 사전에 설정한 ESG 기준에 따라 특정 기업·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Negative Screening), 우수한 ESG 특성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Positive Screening) 전략. / **Thematic(테마투자)**: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자원효율성, 사회적 가치 등 특정 ESG 주제와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 / **Momentum(ESG 모멘텀)**: 현재 ESG 수준뿐 아니라 ESG 성과가 개선되고 있거나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 / **Engagement(관여활동)**: 투자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의 ESG 관련 정책과 경영활동의 개선을 유도하는 전략.

[4] 특정 종목을 비교대상(벤치마크 또는 일반펀드)보다 낮은 비중으로 편입하는 투자전략. 해당 종목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할 경우 펀드의 상대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반대로 해당 종목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상대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반면 삼성전기와 LS ELECTRIC 등 일부 종목에서는 일반펀드 대비 Overweight(초과편입)[5]와 양호한 주가성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종목별 비중 차이를 ESG 요인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SG펀드의 실질적인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유종목의 ESG Score뿐만 아니라 **ESG 투자전략이 실제 포트폴리오 차별화와 투자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성과 측면에서는 ESG펀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의 순자산 가중평균 수익률은 **6개월 101.04%, 1년 178.72%, 3년 265.1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ESG펀드는 각각 93.67%, 165.91%, 196.96%를 기록했다.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는 1년과 3년 기준 KOSPI와 비ESG펀드를 모두 상회했으며, 국내채권 액티브 ESG펀드 역시 전 기간에서 비ESG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위험조정성과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의 샤프비율은 비ESG펀드보다 낮았으나, **국내주식 패시브 ESG펀드는 6개월·1년·3년 모든 기간에서 비ESG펀드보다 높은 샤프비율**을 기록했다. 3년 기준 샤프비율은 ESG 패시브펀드가 1.17로 비ESG펀드의 0.80을 상회했다.

반면 ESG펀드 시장의 외형은 축소됐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ESG펀드는 총 **185개**로, 2025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순자산은 9조 1,287억원으로 2025년 말 9조 6,030억원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상반기 전체 자금흐름은 **2조 8,508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채권형 ESG펀드에서 2조 6,382억원이 유출돼 전체 자금유출의 약 93%를 차지했다. 일부 대형 채권형 펀드의 자금 이동이 전체 ESG펀드 시장의 순유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ESG펀드 시장의 자금유출을 투자성과 부진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내주식 패시브 유형을 제외하면 ESG펀드의 수익률이 비ESG펀드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일부 대형 펀드의 자금 이동이 시장

[5] 특정 종목을 비교대상(벤치마크 또는 일반펀드)보다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는 투자전략. 해당 종목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할 경우 펀드의 상대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전체의 순자산 및 자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는 ESG 성과와 투자성과 간 관계가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배구조 성과가 장기 위험조정성과 및 하방위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며 "동시에 ESG펀드와 시장의 ESG Score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ESG Score가 높은 포트폴리오인지 여부를 넘어 ESG 요소가 실제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투자가 성숙할수록 투자 과정에서 ESG 정보의 품질과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연기금 등 자금을 위탁하는 기관투자자가 ESG 운용성과를 평가할 때, 벤치마크 대비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중장기 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별도의 고유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2026년 상반기 ESG펀드 성과분석

□ **(배경)** ESG펀드의 ESG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에게는 ESG 투자전략의 운용결과를 증명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펀드 투자자에게는 ESG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ESG 성과 분석)**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형 ESG펀드 55개의 ESG 성과를 분석한 결과, ESG Score의 중앙값은 76.81점으로 KOSPI의 76.68점을 소폭 상회함. ESG펀드와 KOSPI 간 ESG Score 격차는 0.13점으로 전반기 0.30점 대비 축소되며 양 집단의 ESG 성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임

[표1] 2026년 상반기 ESG펀드의 SUSTINVEST Fund Portfolio ESG Score

구분	2026 상반기				
	최솟값	평균	중앙값	최댓값	KOSPI
ESG	72.77	76.81	**76.81**	83.01	76.68
E	42.24	83.39	**84.65**	89.46	85.83
S	58.49	75.52	**76.03**	83.02	76.10
G	55.18	59.21	**59.08**	63.76	59.25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 **영역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E·S·G Score는 각각 84.65점, 76.03점, 59.08점을 기록함. KOSPI는 각각 85.83점, 76.10점, 59.25점으로 나타나 ESG펀드와 시장 간 영역별 ESG 성과 차이 역시 크지 않은 수준임

○ **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액티브 유형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ESG Score는 76.81점, 패시브 유형은 76.94점을 기록함. 액티브 유형의 ESG Score는 72.99~77.93점에 분포한 반면 패시브 유형은 72.77~83.01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임. 이는 패시브 펀드별 기초지수의 구성 목적 및 종목 선별방식에 따라 ESG 성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2]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유형별 ESG 성과 (중앙값 기준)

구분	ESG	E	S	G
액티브 펀드 (38개)	76.81	85.52	76.12	58.95
패시브 펀드 (18개)	76.94	84.11	75.32	59.20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 **전략별[6] 성과**를 살펴보면, 투자전략 간 ESG Score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함. Integration, Screening, Thematic, Engagement or Momentum 전략의 ESG Score 중앙값은 각각 **76.81점, 76.81점, 76.75점, 76.82점**으로 모두 76점대 후반에 위치함

Integration 전략은 24개 펀드에 적용되며 ESG Score가 72.99~77.93점에 분포함. Screening 전략은 12개 펀드로 ESG Score 중앙값은 Integration과 동일한 76.81점을 기록했으나, 최고점은 83.0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Thematic 및 Engagement or Momentum 전략의 ESG Score 중앙값 역시 각각 76.75점과 76.82점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ESG Score만으로는 투자전략별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 투자전략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보고서에서는 다음 구분 하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펀드의 ESG 투자전략을 분류하였음
Integration: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ESG 성과를 통합적으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고려
Screening: 특정한 ESG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방법
Thematic: E/S/G 요소와 관련된 특정 테마를 설정 후 테마에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Engagement: 피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와 비공개대화 등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
Momentum: 기업의 ESG 성과 개선 수준에 기반하여 투자 여부 및 비중을 결정

[표3]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전략별 ESG 성과 (중앙값 기준)

구분	ESG	E	S	G
Integration	**76.81**	85.52	76.12	58.95
Positive Screening	**76.81**	85.47	76.31	59.11
Thematic	**76.75**	83.98	75.34	59.12
Engagement or Momentum	**76.82**	85.87	76.56	59.06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 **비ESG펀드의 ESG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주식형 액티브 펀드 패밀리 설정액 상위 10개 펀드를 분석한 결과, 액티브 ESG펀드의 ESG Score는 77.39점으로 비ESG펀드의 76.00점을 1.39점 상회함. 특히 G Score는 ESG펀드가 60.35점으로 비ESG펀드의 58.24점보다 2.11점 높아 지배구조 영역에서 상대적 차별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4] 2026년 상반기 비ESG펀드의 ESG 성과 (중앙값 기준)

구분	ESG	E	S	G
국내주식형 ESG펀드	77.39	84.15	75.37	60.35
비ESG펀드(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76.00	84.68	75.95	58.24

□ **(수익률 상관관계 분석)** 2026년 상반기에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ESG 성과와 초과수익률 및 위험조정성과 간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 2026년 상반기에는 ESG 투자전략별 수익·위험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특히 **Screening 전략은 KOSPI 대비 6개월 13.62%p, 1년 32.57%p, 3년 72.57%p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 초과성과가 확대됨

Integration 전략 역시 전 기간 KOSPI를 상회하며 3년 기준 44.14%p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Thematic과 Engagement or Momentum 전략은 전 기간 KOSPI를 하회함. 이에 따라 ESG 적용 여부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ESG 투자전략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지가 장기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국내주식형 ESG펀드의 ESG 성과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SG Score와 KOSPI 대비 초과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6개월 0.287, 1년 0.351, 3년 0.471**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의 관계가 강화됨

ESG Score와 샤프비율 간 상관계수 역시 **6개월 0.158 → 1년 0.385 → 3년 0.539**로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ESG 성과가 높은 펀드일수록 위험조정성과도 우수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ESG펀드의 지배구조 성과와 장기 위험조정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면, G Score는 단기 초과수익률 및 샤프비율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장기에서는 관계가 변화함**

3년 기준 G Score는 샤프비율과 **0.487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방편차와는 **-0.345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기록함. 이는 지배구조 성과가 높은 펀드일수록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성과가 높고 하방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표5] 2026년 6월 말 기준 ESG Score와 초과수익률 및 샤프비율 간의 상관계수

구분			6개월	1년	3년
Integration or Screening	ESG Score	초과수익률	0.287***	0.351**	0.471***
		샤프비율	0.158	0.385**	0.539***
		하방편차	0.226	0.241	-0.281
	G Score	초과수익률	-0.279***	-0.219	0.199
		샤프비율	-0.286***	-0.122	0.487***
		하방편차	-0.161	-0.192	-0.345***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유의 수준과 함께 제시함 (:10%, **:5%, ***:1%)
**3년의 경우, 3년 평균 ESG/G Score와 수익률 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

□ **(ESG펀드의 차별성 분석)**

□ **(포트폴리오 차별성 분석)** ESG펀드와 일반펀드 간 포트폴리오 차이는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차별적인 종목 배분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종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ESG펀드와 일반펀드 간 종목별 평균 보유비중을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타남. ESG펀드는 일반펀드 대비 삼성전자를 **6.9%p**, SK하이닉스를 **4.7%p Underweight**하고 있으며, 두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차이의 27.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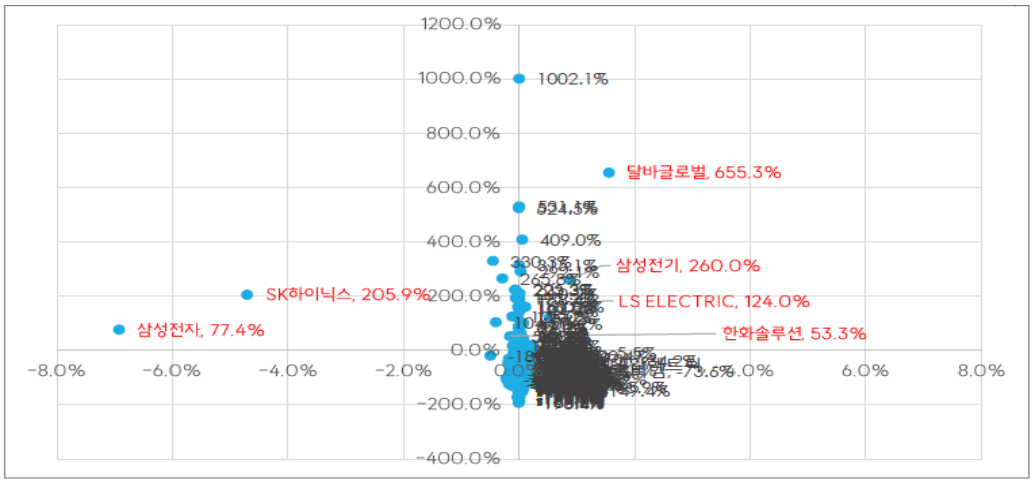
[표7] 2026년 상반기 ESG펀드의 종목별 비중 차이와 성과 영향도 TOP10

종목명	ESG 펀드 내 비중[9]	일반 펀드 내 비중[10]	비중 차이	비중차이 기여도[11]	상대비중[12]	6M 수익률
삼성전자	22.7%	29.7%	-6.9%	16.1%	Underweight	178.6%
SK하이닉스	20.4%	25.1%	-4.7%	11.0%	Underweight	307.1%
삼성전기	4.0%	3.1%	0.9%	3.6%	Overweight	361.1%
달바글로벌	4.4%	2.8%	1.6%	2.9%	Overweight	756.5%
LS ELECTRIC	1.2%	0.7%	0.5%	2.6%	Overweight	225.1%
삼성SDI	1.4%	1.4%	0.0%	2.2%	Overweight	95.6%
SK스퀘어	1.7%	1.4%	0.3%	2.1%	Overweight	66.9%
에코프로비엠	1.4%	1.1%	0.3%	1.7%	Overweight	27.5%
한화솔루션	0.8%	0.9%	-0.2%	1.5%	Overweight	154.4%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상반기 각각 시장 대비 **+77.4%p, +205.9%p**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으나 ESG펀드가 일반펀드 대비 Underweight함에 따라 ESG펀드의 상대성과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반면 삼성전기와 LS ELECTRIC 등은 일반펀드 대비 Overweight하면서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해 ESG펀드의 차별적 종목 배분이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됨. 다만 상승주 Overweight 종목의 비중 차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Underweight 폭은 커, **대형 상승주에 대한 낮은 노출이 상대성과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1] 2026년 상반기 ESG펀드의 종목별 비중 차이와 시장 대비 성과



○ 이러한 결과는 ESG펀드의 차별성이 단순히 높은 ESG Score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ESG 투자전략이 실제 종목 선택과 비중 조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줌. 향후 ESG펀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SG Score뿐만 아니라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차별화 → 투자성과'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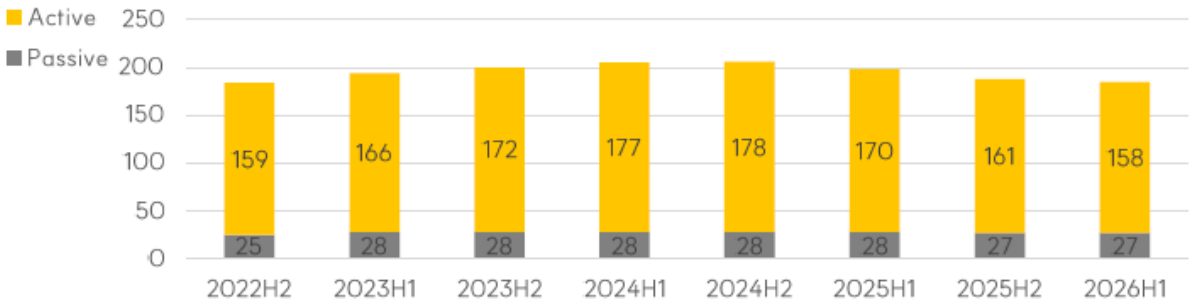
2 2025년 상반기 ESG펀드 동향 및 수익률

□ **(일반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ESG펀드*는 총 **185개**로 집계됨. 2026년 상반기 동안 신규 펀드는 없었으며 3개 펀드가 청산되면서 국내 ESG펀드 개수는 **2025년 상반기 이후 3개 반기 연속 감소**함

액티브 ESG펀드는 158개로 전반기 대비 3개 감소했으며, 패시브 ESG펀드는 27개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SG펀드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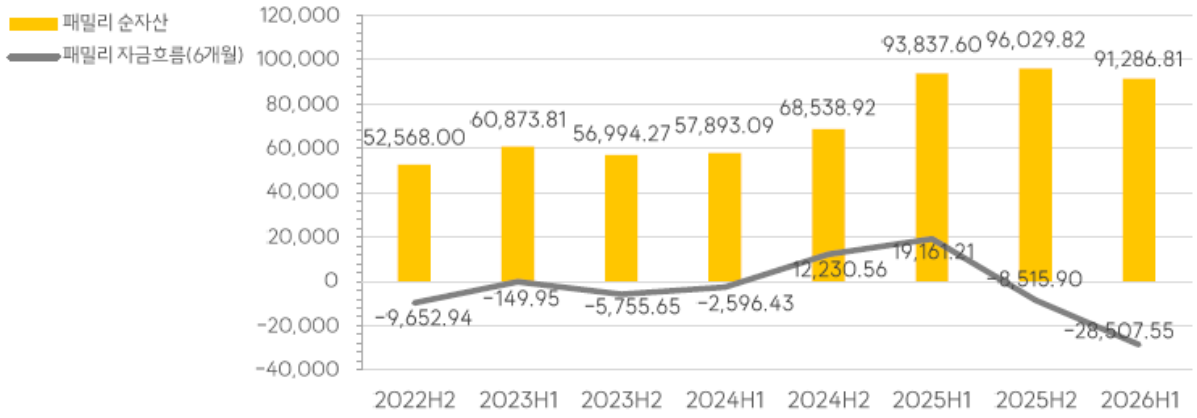
[그림2] 국내 ESG펀드 개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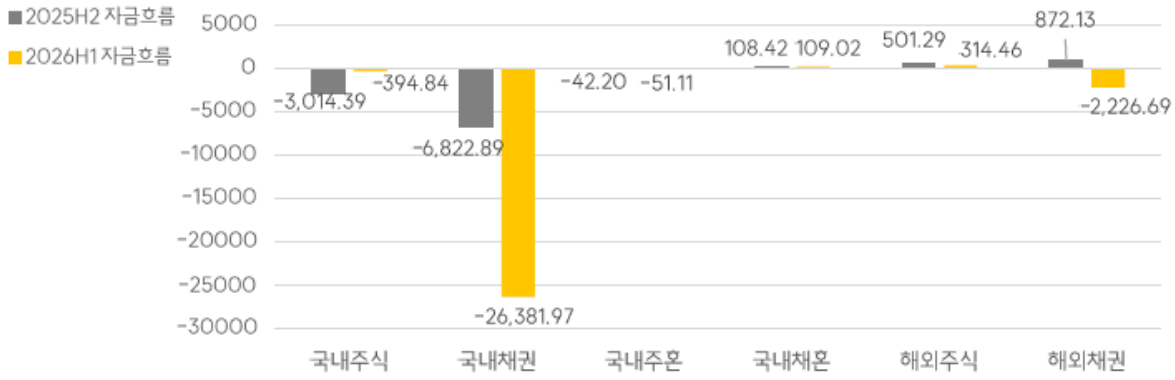
○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ESG펀드 순자산 규모는 **9조 1,287억원**으로 2025년 12월 말 9조 6,030억원 대비 약 5% 감소함. 상반기 전체 자금흐름은 **2조 8,508억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3개 반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함

특히 국내채권형 ESG펀드에서 **2조 6,382억원**이 유출되며 전체 자금유출의 약 93%를 차지함. 이 가운데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증권자투자신탁1(채권)에서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출되며 국내채권형 전체 자금유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형 펀드의 자금 이동이 전체 ESG펀드 시장의 자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침

[그림3] 국내 ESG펀드 순자산 및 자금흐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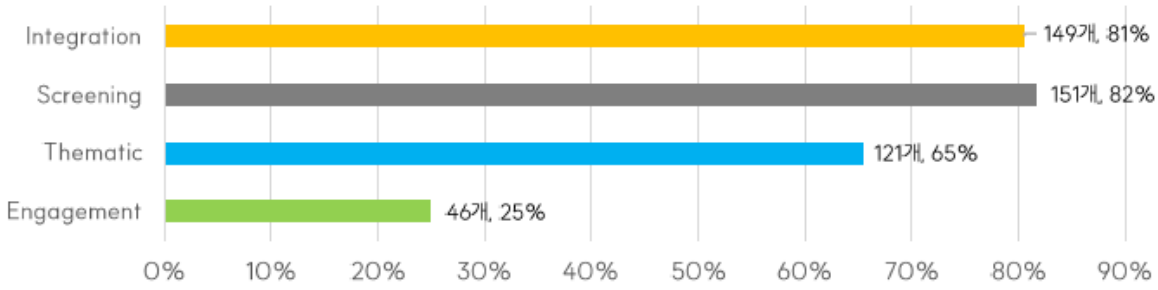
[그림4] 국내 ESG펀드 자산군별 자금흐름(단위: 억원)



□ **(투자전략)** Integration과 Screening이 여전히 국내 ESG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으로 활용됨

○ 2026년 상반기 기준 전체 ESG펀드 가운데 **Integration 전략은 149개(81%), Screening 전략은 151개(82%)**에서 활용됨. Thematic은 121개(65%), Engagement는 46개(25%)에서 활용되며, Screening 전략 가운데서는 Positive Screening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5] 투자전략별 국내 ESG펀드 개수(중복 분류 허용)



□ **(평균수익률)**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주식 액티브 및 국내채권 액티브 ESG펀드는 **6개월·1년·3년 전 기간에서 비ESG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함

○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의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101.04%, 178.72%, 265.10%**로, 비ESG펀드의 93.67%, 165.91%, 196.96%를 모두 상회함. 1년 및 3년 기준으로는 KOSPI 수익률도 상회했으며, 6개월 수익률은 KOSPI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 국내채권 액티브 ESG펀드 역시 6개월 **0.08%**, 1년 **0.74%**, 3년 **12.23%**로 비ESG펀드의 -1.45%, -1.96%, 9.31%를 전 기간 상회함

○ 국내주식 패시브 ESG펀드는 6개월 수익률이 163.80%로 비ESG펀드의 130.82%를 32.98%p 상회하며 전반기 대비 상대성과가 개선됨. 반면 1년 및 3년 수익률은 비ESG펀드를 하회했는데, 이는 비ESG 패시브 유형에 포함된 반도체·IT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수익률 영향으로 분석됨

[표9] ESG펀드 vs 비ESG펀드 vs KOSPI 기간별 평균 수익률(2026년 6월 말 기준)

펀드 유형	6M			1Y			3Y		
	ESG 펀드	비ESG 펀드	KOSPI	ESG 펀드	비ESG 펀드	KOSPI	ESG 펀드	비ESG 펀드	KOSPI
국내주식 액티브	101.04	93.67		178.72	165.91		265.10	196.96	
국내주식 패시브	163.80	130.82	101.14	212.48	282.20	175.95	307.31	384.74	230.56
국내채권 액티브	0.08	(1.45)		0.74	(1.96)		12.23	9.31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Dataguide

○ 샤프비율의 경우 국내주식 패시브 ESG펀드가 6개월·1년·3년 모든 기간에서 비ESG펀드를 상회함. 특히 3년 샤프비율은 ESG펀드 **1.17**, 비ESG펀드 **0.80**으로 장기로 갈수록 격차가 확대됨. 반면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의 샤프비율은 전 기간에서 비ESG펀드를 하회함

[표10] ESG펀드 vs 비ESG펀드 기간별 평균 샤프비율(2026년 6월 말 기준)

펀드 유형	6M		1Y		3Y	
	ESG펀드	비ESG펀드	ESG펀드	비ESG펀드	ESG펀드	비ESG펀드
국내주식 액티브	1.32	1.62	1.23	1.50	0.63	0.77
국내주식 패시브	1.86	1.68	1.89	1.57	1.17	0.80
국내채권 액티브	-0.16	0.01	-0.16	-0.17	0.16	0.30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 MDD의 경우 국내주식 패시브 ESG펀드는 비ESG펀드보다 모든 기간에서 약 4~5%p 낮은 하락폭을 기록함. 반면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는 샤프비율과 MDD 모두 비ESG펀드 대비 열위로 나타나 **2026년 상반기 기준 패시브 ESG투자가 수익 효율성과 하방위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표11] ESG펀드 vs 비ESG펀드 기간별 MDD(2026년 6월 말 기준)

펀드 유형	6M		1Y		3Y	
	ESG펀드	비ESG펀드	ESG펀드	비ESG펀드	ESG펀드	비ESG펀드
국내주식 액티브	-19.25	-17.11	-19.25	-16.84	-19.22	-18.11
국내주식 패시브	-21.26	-25.06	-21.26	-26.39	-27.83	-32.68
국내채권 액티브	-1.32	-2.46	-1.86	-3.76	-1.98	-3.92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

□ **(순유입 상위 펀드)**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형 ESG펀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금이 유출됐으나, 일부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남

○ 국내주식형 ESG펀드 순유입 상위 10개 펀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균 보유비중은 약 33%이며, 이 중 두 종목의 합산 보유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5개로 나타남. 다만 두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3개 펀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123.3%로, 보유비중 50% 이상 펀드의 평균 수익률 77.9%를 상회함. 이들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제약, 반도체 장비, 기술 하드웨어, 정보기술 등의 섹터를 중심으로 구성됨

[표12] 2026년 상반기 국내 주식형 ESG펀드 순유입 TOP10(2026년 6월 말 기준)

펀드명	설정일	6M 수익률 (%)	순자산 (억원)	자금흐름 (억원)	펀드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KBRISEESG사회책임투자증권ETF(주식)	2018-02-26	153.63	6,145.71	2,214.15	55.44
NH-Amundi장기성장대표기업[자]1(주식)	2025-01-06	29.79	1,557.99	1,145.73	54.15
삼성KODEX200ESG증권ETF(주식)	2023-06-28	21.89	273.41	95.24	53.77
키움올바른ESG1(주식)	2019-06-04	114.98	82.99	13.84	53.44
우리지속가능ESG[자]1(주식)	2021-10-28	69.43	149.99	22.28	50.78
한국투자ACEESG액티브증권ETF(주식)	2006-08-01	118.19	141.59	2.33	43.80
미래에셋TIGERKRX기후변화솔루션증권 ETF(주식)	2021-03-04	53.13	1,346.32	247.63	18.22
미래에셋TIGERFn신재생에너지증권ETF(주식)	2019-11-13	142.92	2,261.83	687.65	0.0
삼성KODEX코스닥글로벌증권ETF(주식)	2004-10-06	112.05	443.32	40.51	0.0
신한SOL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증권 ETF(주식)	2021-05-24	114.88	660.07	25.08	0.0

자료: 서스틴베스트, 한국펀드평가